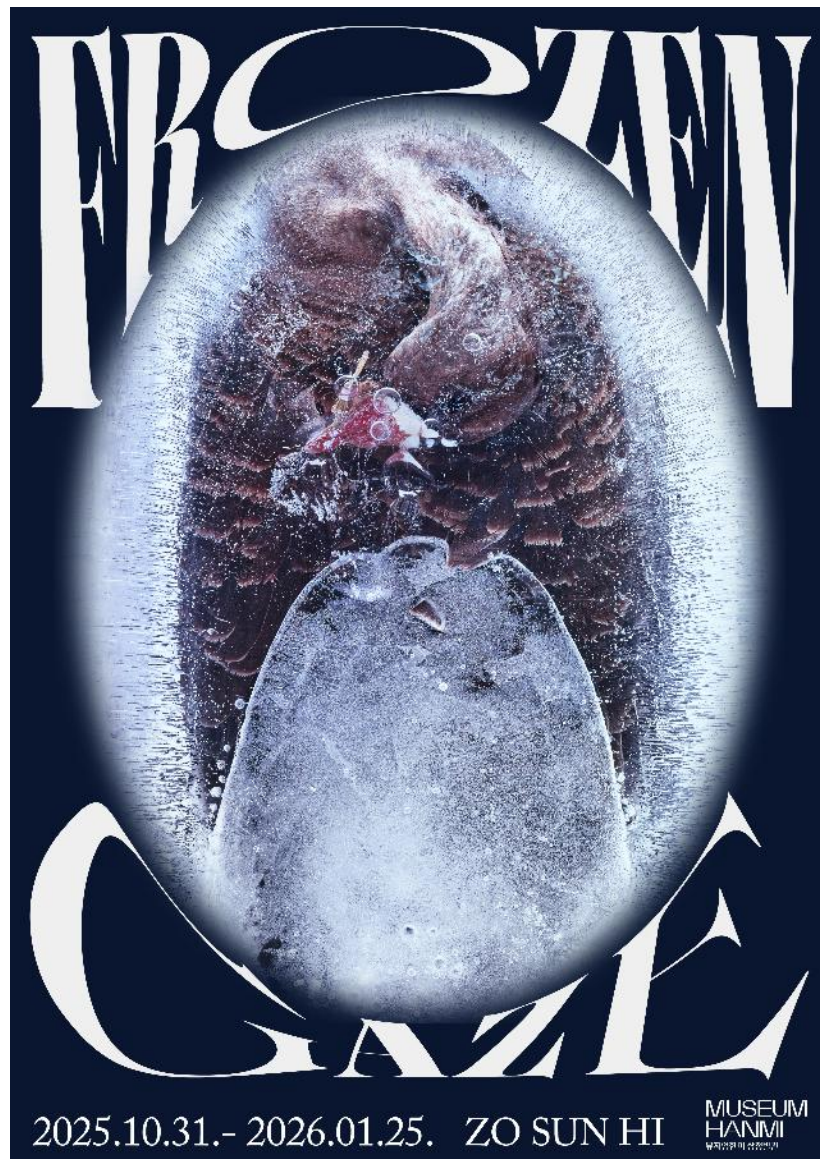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기획전

조선희 개인전 《FROZEN GAZE》

2025. 10. 31. (금) ~ 2026.01. 25. (일)



- 조선희, 새로운 사진 연작 소개 — 개인전과 동명 사진집 《FROZEN GAZE》 개최·발간
- 죽은 새를 열려, 얼어붙은 감정을 응시하다
- 조선희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

전 시 소 개

■ 뮤지엄한미(관장 송영숙)는 조선희 개인전 《FROZEN GAZE》를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삼청별관에서 개최한다.

■ 인물사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조선희가 새로운 예술사진 연작을 집약하여 선보이는 자리다. 그간의 상업사진 활동과 개인 작업을 통해 쌓은 시각적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기록과 재현의 틀을 넘어 감각과 사유의 과정을 사진으로 풀어낸다. 이러한 태도는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이라는 그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전시는 사진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나가는 조선희의 예술적 탐구를 보여준다.

■ 전시에는 조선희가 2018년부터 이어온 연작 〈FROZEN GAZE〉가 공개된다. 죽은 새를 얼음으로 얼려 촬영하는 이 연작은 작가가 작업실 앞에서 마주친 죽은 참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장면에서 돌아간 아버지를 떠올린 작가는 ‘얼림’이라는 행위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자 한다. 연작의 제목이자 전시 제목인 ‘FROZEN GAZE’, 즉 ‘얼어붙은 응시’는 이처럼 순환하지 못하고 멈춘 감정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번 연작에서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이미지로도 완벽히 포착되지 않는 ‘감정의 잔여물’을 표현하고자 한다.

■ 작가는 로드킬당한 새들로 작업을 이어가며, 냉동과 해동의 반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기포·물결 무늬를 실험했다. 새의 상태나 물의 종류(정수, 수돗물 등), 온도와 시간에 따라 우연히 형성되는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회화적인 질감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새의 숨결이 함께 얼어붙은 듯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번 연작은 디지털로 개조한 4×5 대형 카메라로 촬영해, 아날로그의 깊이와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의 세밀한 표현력을 담았다. 이러한 작업 과정으로 만들어진 시각적 요소들은 단순한 정지 이미지가 아닌 죽음과 기억, 정지와 흐름이 교차하는 조형적 장면을 구성한다.

■ 조선희가 시각화한 감정의 흐름은 전시 공간의 구성에서도 구현된다. 두 개 층으로 나뉜 삼청별관 전시장에서 어둡게 연출된 아래층(Gallery 1)은 감정의 침전과 정체를, 자연광이 스며드는 위층(Gallery 2)은 감정이 다시 흐르고 회복되는 상태를 상징한다. 작가는 이러한 공간적 대비를 통해 관람자가 정지와 흐름이 오가는 감정의 여정을 체험하길 의도한다.

■ 대상을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는 작가의 사유와 체험이 응축되어 있다. 이는 작가가 기억과 감정을 섬세하게 다스리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수행적 시간이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 기억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신의 상실 경험과 감정을 겹쳐보며 내면 깊숙이 얼어붙은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 전시 개막과 함께 발간되는 전시 연계 도록에는 작가노트,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선영 뮤지엄한미학예연구관의 기획노트, 그리고 이필 홍익대학교 교수의 비평문이 수록되어 조선희의 작업 세계와 이번 전시에 관한 비평적 해석을 한층 심화한다.

■ 전시 기간 중에는 아티스트 토크,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11월 1일(토)에는 작가에게 직접 작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리며, 12월에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11월부터 1월까지 매달 한 번씩,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진행하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전시 기간 동안 전시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 (<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가 프로필

조선희(1971~)는 상실과 기억, 그리고 사라진 감정의 잔향을 사진으로 탐구한다. 죽은 새, 시든 꽃, 썩어가는 과일 등 덧없음의 오브제를 통해 멈춘 시간을 붙잡고, 사라짐의 순간을 다시 감각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그는 죽음과 생, 존재와 부재, 은폐와 드러남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정서를 응시하며, 해석되지 않은 감정이 머무는 틈을 포착하기 위해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조아조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1. 아티스트 토크

- 개요: 전시작을 비롯하여 작가의 작업 세계 전반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시간
- 일시: 11 월 1 일(토) 오후 3 시

2.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 개요: 얼어붙은 새를 통해 해석되지 않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의 작업에 대해 심도있게 탐구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재현하는 시간
- 일시: 12 월 6 일(토) 오후 3 시 / 12 월 20 일(토) 오후 3 시 (2 회 진행 프로그램)

3.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수취인 불명의 편지>

- 개요: 전시를 함께 감상하며 작품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
- 일시: 11 월 22 일(토) 오후 2 시 / 12 월 12 일(금) 오후 5 시 / 1 월 17 일(토) 오후 2 시

4. 어린이 프로그램 <추억은 비누향>

- 개요: 작가의 작업 과정을 연상시키는 워크숍 프로그램. 추억이 담긴 오브제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정서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 일시: 1 월 10 일(토) 오후 2 시

5. 상설 프로그램 <작가와 나의 일기장>

- 개요: 작가의 내밀한 이야기와 감정선을 관람객이 공감하고, 이를 공동의 서사로 확장시키는 참여형 프로그램
- 일시: 전시 기간 내 상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FROZEN GAZE_100020〉, 2020, Pigment print © 조선희
2		〈FROZEN GAZE_332483〉, 2020, Pigment print © 조선희
3		〈FROZEN GAZE_364639〉, 2024, Pigment print © 조선희
4		〈FROZEN GAZE_432527〉, 2025, Pigment print © 조선희

5		〈FROZEN GAZE_881844〉, 2025, Pigment print © 조선희
6		〈FROZEN GAZE_405297〉, 2021, Pigment print © 조선희
이미지 요청 및 문의 김소정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조선희 개인전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조선희 개인전 《FROZEN GAZE》

전시기간 : 2025년 10월 31일(금) ~ 2026년 1월 25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11길 11)

전시작품 : 사진 40점 내외, 영상 2점

주 관 : 뮤지엄한미

기 획 : 뮤지엄한미

후 원 :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람시간 : 화-일 10:00 ~18:00(매주 월요일 휴관)

문 의 :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대표전화 02-722-1315, museum@museumhanmi.or.kr

※ 이 전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및 개막 행사 없이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는 뮤지엄한미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접속

ID: hanmimuseum / PW:1315 로그인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조선희 개인전